

다. 그것만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 2009년경 국익정보국장은 이재희로 KT 목표는 국익정보국 3단 경제2차장인 2009. 7. 경 이전에는 민O국 처장이, 2009. 7.경 이후에는 김O수 처장이 담당하였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요.

답. 모릅니다. 매칭 사업할 때 KT는 매칭 사업 대상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없었습니다.

문. 담당 I/O들은 분당에 있는 KT 본사와 서울에 있는 KT 서울 사무소를 모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답.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문. 증인은 국익정보국 국장으로 KT를 담당하였고, 이에 관해 보고도 받았지요.

답.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문. 보고서가 있으면 담당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답. 저희는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문. 2011. 3. 19.자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1. 3. 11. 날 정보처장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그에 대한 질문에 사전 회의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증인은 사전 회의 자료를 만드는 것을 아는가요.

답. 제가 전국 부서장 회의를 할 때 보니까 우리 책상 말고 차장님과 정무직 자리에만 만들어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런 회의는 자료를 만들지 않겠냐고 생각했습니다.

문. 증인의 추측인 것이지요. 증인은 정보처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지요.

답. 예,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를 제시하고]

문. 2010. 9.경부터 2012. 5.경 사이에 정보처장 회의가 4회 열렸습니다. 그중 유독 2011. 3. 11. 회의에 2차장이 참석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증인은 3. 11. 날 피고인 민병환이 정보처장 회의에 참석했는지 알고 있는가요.

답. 저는 정보처장 회의를 차장님이 주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문. 차장이 주재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방식에 대해 2차장 집무실 옆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대회의실에서 4차례 개최되었고, 국익전략실장, 국익전략실·국익정보국 간부 및 지부 정보처장들이 참석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2차장이 참석해서 회의 시작 시 훈시 인사말을 하고 국익전략실장이 주재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이런 내용은 모르지요.

답. 저는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정보처장 회의는 차장이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장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차장이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동걸의 변호인 소동기

증인에게

문. 증인은 황우여 의원과 이 모 의원의 출장비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지요.

답. 예.

문. 애당초 그분들에게 출장비를 줄 때 국정원 예산으로 나와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 주었다가 뒤에 문제가 됐고, 그 돈이 잘못 전용돼서 증인이 회수책임자로 회수했다는 취지이지요.

답. 예. 그 당시 그분들이 정보위원이었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중동에 출장을 갔습니다. 기조실에서 여비 일부를 지원해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왜 국정원 예산을 받아서 썼냐고 문제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관례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출장비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분들이 받은 출장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조실에 반납하고, 반납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 그분들이 국정원 예산이 전용된다든가 잘못된 돈이라고 했으면 받았을까요. 몰랐으니까 받아서 쓴 것 아닌가요.

답. 저는 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